

제6회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실

동학농민혁명의
어제와 오늘

일시 : 1999년 11월 11일~14일

장소 : 전주MBC 공개홀

■ 주최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주MBC, 전교조 전북지부

■ 후원 : 전라북도

창작 오페라

‘녹두장군’ 전국 순회공연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일제 36년과 분단 반세기 로
점철된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해 한 지역 단위의 국지적인
민란으로 왜곡·축소된 채 역사의 뒤편에 묻혀왔던 동학농민혁
명의 역사적 대의를 복원, 그 참모습을 확인하고자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같은 노력의 한 결실로 사단 법인
호남오페라단, 영남오페라단과 함께 3년의 제작과정을 거
쳐 완성된 창작 오페라 ‘녹두장군’ 을 4개월간 전국 순회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여명이 출연하는 이 공연
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왜곡되고 축소된 채 묻혀왔던
동학농민혁명이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근대사의 첫새벽을 연 전국적 규모의 구국항쟁으로
의 참모습을 되찾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앞날에 애국애족의 좌표로, 통일국가 실
현의 벅찬 희망으로 되살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총감독 단장/ 조장남 김귀자
작곡/ 장일남
원작/ 차범석
지휘/ 이일구
연출/ 정갑균

■ 순회공연 일정

지 역	일 정	비고
전북 전주시	1999. 11. 28. ~ 12. 1.	4회
대구광역시	2000. 1. 21 ~ 1. 22.	2회
서울특별시	2000. 1. 28 ~ 1. 29.	2회
광주광역시	2000. 2. 13.	1회
부산광역시	2000. 2. 19.	1회
대전광역시	2000. 2. 25.	1회

전주공연

- 1999. 11. 28. ~ 12. 1. 오후 7시
-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주최 :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 : 사단법인 호남오페라단, 영남오페라단

후원 : KBS한국방송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협찬 : LG-Caltex정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한국통신문화재단

■ 공연문의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0652. 252-8600, 8599
사단법인 호남오페라단 0652. 288-6807

제6회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실
동학농민혁명의 어제와 오늘

일시 : 1999. 11. 11.~14.
장소 : 전주MBC 공개홀

차 례

제6회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실을 열며	7
제6회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실 일정	8
역사강좌·1 - 동학농민혁명의 용어는 어떻게 변천되었나	9
역사강좌·2 - 문학작품 속에 형상화된 동학농민혁명	14
역사강좌·3 -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	23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 전적지 소개	26

민족통일의 뉘트로 되살아오기를

1992년 6월에 창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부패한 봉건정부의 학정과 외세의 침탈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결연히 떨쳐나섰던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일제 36년과 분단 반세기로 점철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해 반란으로, 한 지역단위의 민란 정도로 왜곡되고 축소된 채 폄훼되어온 혁명의 의미를 바로세워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 역사의 명실상부한 백두대간임을 확인하고 그 역사적 대의를 널리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창립 이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대회를 비롯하여 매년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백산봉기를 기념하여 '범도민 건기대회 및 학생 글쓰기대회', 혁명의 최대 승전지이자 집강소 활동의 중심무대였던 전주시에서 '전주입성 기념대회', 혁명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된 기점인 '삼례봉기 기념대회' 등을 다채롭게 펼쳐왔습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 학술대회 및 출판사업, 전적지 답사, 혁명의 역사적 대의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역사교실, 문화예술 공연사업 등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제6회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실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을 준비하던 1989년부터 펼쳐왔던 동학농민혁명 시민강좌를 계승하여 창립 이후 매년 가을 년례사업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부터는 우리지역 언론문화창달을 위해 애쓰는 전주MBC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참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의 열정을 쏟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실 개최를 통해 한 세기전 자주·평등·대동세상을 실현하고자 결연히 떨쳐나섰던 갑오선열들의 고귀한 뉘이 다시 꽃으로 피어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국가 실현의 벅찬 희망으로 되살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갑오선열들의 뉘을 기리고 그 고귀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제6회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실을 후원해 주신 유종근 전라북도지사님, 이 사업의 공동주최를 배려해 주신 장영배 전주MBC 대표이사님, 차상철 전교조전북지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 11. 11.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어제와 오늘

역사강좌 | 11월11일~12일 오후 7시 / 13일 오후2시 ~ 6시

- 첫 번째 강좌 동학농민혁명의 용어는 어떻게 변천되었나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고문, 역사학자)
- 두 번째 강좌 문학작품 속에 형상화된 동학농민혁명
안도현(시인,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 作者)
- 세 번째 강좌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영상강좌 -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天命' 공연실황

역사기행 | 11월 14일 (09:00 ~ 18:00)

- 출발 : 오전 9시, 전주공설운동장 앞 광장
- 안내 : 문병학(시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장소 : 전봉준장군 생가 터→무장기포지→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황토재 전적지→만석보 유지비→말목장터
전봉준장군 고택→백산봉기 터→원평 구미란 전투지

교육강좌 - 동화로 가르치는 동학농민혁명
김종필(동화작가, 군산중앙초등학교 교사)

동학농민혁명의 용어는 어떻게 변천되었나

-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포함하여

* 이 이 화

1894년의 농민전쟁 또는 혁명을 규정하는 역사 용어는 극심한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4백여 년을, 19세기말의 항일무장투쟁은 1백여 년을 의병이라고 변함없이 명명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성격규정에 혼선이 야기되었음을 보여준다. 봉기 당시부터 식민지시대를 겪고 해방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십가지로 쓰여져 왔다. 1974년이래 국정교과서로 지정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1. 1894년 당시의 용어

이 사건과 봉기를, 당시 민씨 정권과 개화파정권, 일본군 그리고 유림측에서는 한결같이 비적(匪賊) 비도(匪徒)라 불렀다. “도둑떼” 또는 “도둑의 무리”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무력과 폭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왕군에 맞서 봉기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전 수많은 민중봉기와 홍경래가 벌인 관서농민전쟁과 차별성을 두지 않고 동일시한 시각이다.

이와 달리 농민군 자신들은 동학교도라는 뜻으로 동도(東徒), 의로운 일을 위해 일어난 병사라는 뜻의 의병이라 불렀다. 의병은 국난이 있을 적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근왕병(勤王兵)이나 외국침략 세력에 맞선 병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 둘을 합해 동도의병(東徒義兵)이라 하기도 했다. 당시의 사건전개를 기록한 유림들은 이를 절충하거나 과거의 비적과 성격을 구별해 동도란이라거나 동비난(東匪亂)이라 불렀다. 곧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동비”라 명명했던 것이다. “동학도의 난” 또는 “동학 비도의 난”이라 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려는 뜻을 담았다. 황현은 당시 정권의 비리를 질타하면서도 동학교도들이 폭동으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봉기도 배척해 양비론을 전개했던 것이다. 하지만 항일투쟁에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역사의식은 바로 뒤시기로 이어졌다.

2. 식민지 시대의 성격규정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속에 민족사학자와 일제 식민사학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최초로 역사사건으로 다룬 사학자는 박은식이었다. 그는 1915년 중국에서 간행한 『한국통사』에서 갑오동학지란(甲午東學之亂)이라고 불렀다. 거기에 동학교도의 발호를 적고 “대개 동

* 역사학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학당에는 본래 정치사상과 혁명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것이 비천한 무뢰배나 어리석은 무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폭하기가 이와 같았다. 그러나 엄격하고 잔인했던 종래의 계급관념이 이로 말미암아 무너졌으니 또한 개혁의 선구자라 말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극동노력자대회가 열렸는데 여기 보고논문에서 “양반중심의 조선왕조 체제를 마감하려는 계급투쟁과 농민의 정치적 혁명의 요구다”고 이해하고 “동학란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을 수세기에 걸친 침탈로부터 억압당해 온 민중들이 연합해 일으킨

폭동이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농민폭동이라 정의한 것이다. 이때에 레닌의 큰 관심을 불러왔다. 레닌은 여운형에게 최시형의 행동을 되레 일러주는 열성을 보였다 한다.

불교사학자인 황의돈은 1922년 잡지 개벽에서 <갑오혁신운동>이라 이름을 붙여 그 역사적 의의를 기술하였다. 그는 “실패가 되었다! 자유를 위하여! 평등을 위하여! 규호하고 분기하던 갑오혁신운동은 그만 실패되고 말았다. 허사가 되었다! 잔약 고통의 양민계급을 구제하기 위해 불이횡포의 귀족계급을 응징기 위하여! 용전하고 활약하던 전봉준의 계획도 그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고 쓰면서 전봉준의 거사를 최초로 높이 평가하였으나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 뒤 계몽사학자인 장도빈은 1926년 서울에서 {갑오동학란과 전봉준}을 써서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전봉준이 주장한 옛것을 뜯어고치고 새것을 정립하며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궁색한 이를 돕는다(革舊鼎新 拯貧濟窮)는 8자는 실로 전봉준이 가공한 민중을 위해 대사업을 경영하는 마음을 나타냈으니 동학란의 정신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일본군과 항쟁한 실상을 전해 주었다. 최초로 그 민족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다음 김상기는 근대사학을 본격으로 배운 사학자로 1931년 동아일보에 36회에 걸쳐 [동학과 동학란]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하였다. 여기에는 그 원인 배경, 동학의 발생과 동학란의 결말 등 그 전체 사건의 전과정을 기술하였다. 그는 호남출신으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기술하면서 전해 오는 이야기 등도 채록하였다. 그는 농민군을 친 인물에 대해 “민포의 수괴로는 지평의 맹영재, 천안의 윤영렬, 태인의 임병찬 등이 그 주요분자였다”고 쓰면서 본격적 실증연구를 이룩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해 일본인 학자들도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 학자는 기꾸지(菊池謙讓)이었는데 이들은 거의 <동학당의 난>으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동학당의 난이, 농민군의 주체적 역량으로 주도된 것이 아니라 대원군과 민비의 정권쟁탈과 청나라의 조선 지배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보았고 청일전쟁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반봉건적 반침략적 요소를 애써 배제하거나 생략하였다.

1936년을 앞뒤로 해서 오지영의 『동학사』와 천도교에서 펴낸 『천도교창건사』(1933년), 정읍군지에 수록된 『전봉준실기』 등이 간행되었다. 『동학사』에는 동학란 동학군으로 표현하면서 그 봉기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 『전봉준 실기』에는 동학란 또는 “동학란 수괴 전봉준”으로 표현하였다. 이들 두 저술에서는 동학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했다. 한편 『천도교창건사』에는 갑오운동 또는 동학란으로 표현하면서 “갑오운동의 실패로 말하면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외국의 내정간섭이며 동학당 내부가 일치하여 먼저 경성을 곧바로 쳐올라오지 않고 충청도 일대에서는 그해 9월에야 겨우 거의하여 대세를 잃은 것이 그의 원인이다”고 써서 그 실상에 접근하였다. 하지만 농민적 속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 중심을 동학에 두고 있었다.

한편 사회경제 사학자인 이청원은 1937년에 펴낸 『조선역사독본』에서 갑오혁명이라 명명하고 중국의 태평천국운동과 같이 동학천국운동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동학이라는 종교를 외피로 하고 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갖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도 농민적 지향을 강조하였다. 농민의 계급투쟁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또 이는 중세 독일의 농민전쟁이 기독교를 외피

로 하면서 봉건영주를 타도하려 했다는 마르크스의 시각을 도입한 것이기도 했다.

3. 1945년 이후의 변화

먼저 북한에서 이의 성격을 반봉건(反封建) 반침략(反侵略) 또는 반제(反帝)라고 규정하여 이칭원의 논리를 한결음 진전시켰다. 그래서 1945년 겨울 초등학교용 문고판으로 〈갑오농민전쟁〉을 펴내 전국에 돌렸다. 이것이 해방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 관련 저작이 된다. 그 뒤 북쪽에서는 거의 농민전쟁이라는 기본 시각에서 〈갑오농민전쟁〉이라 불렀다. 그들은 갑신정변을 부르주아혁명, 갑오개혁을 부르주아개혁이라고 규정하면서 농민전쟁을 폭동의 수법으로 “밑으로부터의 변혁”을 지향했다고 본 것이다.

1980년에 집필이 완성되어 간행한 『조선전사』 근대편에서는 1894년(갑오)농민전쟁이라고 써 놓았다. 농민군들이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 외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였으나 그 한계를 “당시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미숙성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민족 부르주아의 영도를 받을 수 없었고 더구나 노동계급의 영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뒤 이런 기본 시각은 변함없이 이어져 그 용어도 갑오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등으로 써 오면서 그 혁명성에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이었다.

남쪽에서는 1950년대 거의 이에 대한 연구자가 없었다. 김상기 오지영의 저작을 통해 이를 알아보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해 〈동학란〉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정작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기묘하게도 5.16 군사구태타 뒤였다. 군사정권은 정변의 정통성을 강조하려 우리 나라의 혁명은 동학혁명과 5.16혁명 둘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박정희 개인의 견해에 힘입은 바가 클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동학접주여서 어릴 적부터 이를 들어 각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념탑 등에 반영되었다. 1963년에 정부주도로 황토재에 기념탑이 세워졌고 1973년 정부의 후원으로 천도교에서 공주 우금재에 동학혁명군 위령탑이 건립되었다. 동학혁명의 용어는 천도교에서도 수용되었다. 따라서 농민은 동학에 묻혀 끼여들 틈이 없었다. 농민을 삼입하면 계급투쟁적 성격이 강해진다고 본 것이다. 이선근 등 어용사학자들의 협조가 컸었다.

다음 학계에서 이를 한결음 진전시킨 이는 한우근이었다. 그는 1971년 『동학란기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학란〉이라 썼고 그 뒤에 사건전개를 적은 책에서는 〈동학농민봉기〉라 쓰면서 전쟁과 혁명을 애써 외면하였다. 그러면서 종교인 동학을 외피로 하면서 농민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용어의 성격규정에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뒤 70년대에 김용덕 김의환 등은 1894년 이전의 과정을 〈동학운동〉, 뒤의 과정을 〈갑오동학혁명〉이라 불렀고 80년대에 들어 최현식은 이를 따라 〈갑오동학혁명〉이라 불렀다. 이들은 농민적 지향을 소홀히 다루면서 갑오라는 간지와 동학혁명을 적당히 절충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적 지향과 계급투쟁적 의식을 적당히 몰타기 해서 박정희식 명명을 따르고 있었다.

1989년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1백주년 기념사업을 벌이면서 그 전초단계로 관계학자를 초청해 용어토론회를 벌였다. 최초의 공식적인 토론자리였다. 이때에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1894년 농민전쟁〉 등이 그 주된 용어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자리에서도 통일적 용어 사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 각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토론회에서 주목된 점은 농민적 지향을 그 본질로 보려는 시각이었다. 하나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문제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동학농민전쟁〉으로 쓰기로 합의하였다. 곧 농민적 속성과 동학적

요소를 절충하려는 의도였다.

90년대에 들어 대체로 크게 네 가지의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첫째는 <갑오농민전쟁>이다. 이는 정창렬 신영하 우윤 등이 논문제목으로 내걸었다. 둘째는 <동학농민전쟁>이다. 이이화 신영우 등이 이를 주장하였다. 셋째는 <1894년 농민전쟁>이다. 이는 한국역사연구회 중심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 펴낸 <1894년 농민전쟁 연구>에서 나타난다. 넷째는 <동학농민혁명>이다. 이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하였으며 학술적 용어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 천도교에서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동학혁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갑오동학운동>으로 쓰기도 한다. 극심한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동학과 농민, 전쟁과 혁명과 운동을 빼거나 뒤섞여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갑오농민전쟁>이 주류를 이루며 중국에서는 <갑오전쟁>이라고 불러 청일전쟁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

4. 고등학교 교과서의 용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1974년부터 국정으로 펴내서 여러 학자의 다양한 견해가 끼여들 여지를 없었다. 유신체제 수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책에 따른 것이다. 첫 간행의 국정 국사교과서에는 큰 제목으로 <동학의 성장과 농민군의 봉기>로 달고 “안으로는 붕괴되고 있는 조선 봉건사회를 부정하여 자율적 개혁을 도모하였고 밖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몰아내려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200자 원고지 10장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여 기술하면서도 동학군 농민군 그리고 “농민의 동학운동” 등 용어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정확한 역사용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1982년 전두환 정권아래에서 펴낸 국사교과서에서는 앞에 동학운동으로 제목을 달고 동학의 교세와 집회 등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다음으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제목아래 “대대적인 농민운동의 성격을 띠어 갔다”고 적었으나 운동 등 애매하게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반봉건 반침략의 기본 성격을 설명하면서도 운동 등 용어를 써서 부드럽고 온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1996년 간행의 국사교과서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도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명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앞에 “동학의 인간 평등사상과 사회 개혁사상은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농민의 요구에 부합되었고 포접제(包接制)의 조직은 농민세력의 규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의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민란형태의 농민운동은 농민전쟁의 형태로 바뀌어 갔다”고 썼다. 여기에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지속적으로 의병운동이 연결되었다는 의도에서 나왔으나 그 치열성을 온건한 표현으로 대치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끝에 그 성격을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봉건적 체제에 반대하여 노비문서의 소각, 토지의 평균 분작(分作) 등 개혁정치를 요구하였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한 반봉건적 반침략적 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고 규정하였다. 조금 진전된 내용기술이나 그 본문의 분량은 여전히 200자 원고지 10장 정도였다.

이들 교과서의 내용기술은 정권의 속성과 맞물려 있었다. 그래서 조금씩 용어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면서 여러 견해를 잡탕으로 만들어 놓고 또 분량 등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도 거의 여기에 따르고 있다.

5) 마무리 말

결론으로 현재, 용어의 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각자의 주장과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어서 쉽사리 다른 용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당분간 혼란을 겪으며 사용될 것이다. 역사 용어와 성격규정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그 해석은 90년대에 들어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학과 농민 그 둘중에 어느 것을 제일의(第一義)로 보느냐는 것이다. 농민을 기본동력으로 보느냐, 동학을 기본이념으로 삼았느냐는 견해가 오늘날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문학작품 속에 형상화된 동학농민혁명

* 안도현

가보세 가보세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 되면 못 가리

* 임동권 『한국민요집』에 실려 있다.

高阜 斗星山

조운

두성산 이언마는 녹두집이 그 어텐고
뒤염진 늪은이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배트소름하고 묻는 나만 보누나.

술잎 댓잎 푸릇푸릇 봄철만 여기고서
일나서 敗했다고 설거운 노라 마라
오늘은 백만농군이 죄다 瑋準이로다.

* 시인, '서울로 가는 전봉준' 作者

錦 江

신동엽

1

우리들의 어렸을 적
황토 벗은 고갯마을
할머니 등에 얹혀
누님과 난, 곧잘
파랑새 노랗 배웠다.

울타리마다 담쟁이넉출 익어가고
밭머리에 수수모감 보일 때면
어디서라 없이 새보는 소리가 들린다.

우이여! 휘어이!

쇠방울소리 뿌리면서
순사의 자전거가 아득한 길을 사라지고
그럴 때면 우리들은 흙토방 아래
가슴 두근거리며
노래 배워주던 그 양품장수 할머니를 기다렸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잘은 몰랐지만 그 무렵
그 노랜 침장이에게 잡혀가는
노래라 했다.

지금,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오가 되면 그 하늘 아래도 오후가 울리었다.

일 많이 한 사람 밥 많이 먹고
일하지 않은 사람 밥 먹지 마라
오우우..... 하고.

질앗디
콩이삭 벼이삭 줍다 보면 하늘을
비행기 편대가 날아가고
그때마다 엄마는 그늘진 얼굴로
내 손 꼭 쥐며
발두덕길 재촉했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그 가슴 두근거리는 큰 역사를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그땐
그 오폭 부는 하늘 아래 더러 살고 있었단다.

앞마을 뒷동산 해만 뜨면
철없는 강아지처럼 뛰어 다니는 기억 속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따금
이야기의 씨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리.

그 이야기의 씨들은
떡잎이 솟고 가지가 갈라져
어느 가을 무성하게 꽃피리라.

그 일을 그분들은 예감했던 걸까.
그래서 눈보라치는 동짓달
콩강개 문힌 아랫목에서
숨막히는 三伏 순이엄마 목매었던
그 정자나무 근처에서 부채로 매릿소리
날리며 조심조심 이야기했던 걸까.

배꼽 내놓고
아랫배 굽는
그 코흘리개 꼬마들에게.

2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눌던, 검은 구름장을 찢고
永遠의 얼굴을 보았다.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하늘 물 한아름 떠다,
1919년 우리는
우리 얼굴 닦아놓았다.

1894년쯤엔,
돌에도 나무등결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하늘,
잠깐 빛났던 당신은 금세 가리워졌지만
꽃들은 해마다
강산을 채웠다.
태양과 秋收와 연애와 노동.

동해,
원색의 모래밭
사기 굽던 天竺 뒷길
방학이면 등산모 쓰고
절름거리며 찾아나섰다.

없었다,
바깥세상엔. 접시도 살점도
바깥세상엔
없었다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영원의 하늘,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서울로 가는 全 琫準

안도현

눈 내리는 萬頃 들 건너가네
해진 짚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운 이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準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 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선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다 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 자 세 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거나 하리
겨울이라 꾹꾹 숨어 우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 지나 수군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대님을 홀연 풀어헤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聖土 계읍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목숨 타오르겠네
準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왜척화 척왜척화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김남주

한 시대의
 불행한 아들로 태어나
 고독과 위험에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람
 암울한 시대 한가운데
 말뚝처럼 우뚝 서서
 한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온몸으로 껴안고
 피투성으로 싸웠던 사람
 뒤따라 오는 세대를 위해
 승리 없는 투쟁
 어떤 불행 어떤 고통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가장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고
 한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 데
 기꺼이 동의했던 사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키가 작다 해서
 녹두꽃이라 부르기로 하고
 농민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동학혁명의 수령이라 해서
 동도대장 녹두장군
 전봉준이라 부르기도 하니
 보아 다오 이 사람을
 거만하게 깎아 세운

그의 콧날이며 상투머리는
죽어서도 풀지 못할 원한 원한
압제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
죽어서도 감을 수 없는
저 부러진 눈동자 눈동자는
팔십삼 년이 지난 오늘에도
불타는 도화선이 되어
아직도 어둠을 되쏘아 보며
죽음에 항거하고 있지 않는가
탄환처럼 틀어박힌
캄캄한 이마의 별판
저 불거진 흑부리 흑부리는
한 시대의 아픔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한 시대의 상처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한 시대의 절망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보아 다오 보아 다오
이 사람을 보아 다오
이 민중의 지도자는
학정과 가림주구에 시달린
만백성을 일으켜세워
눈을 뜨게 하고
손과 손을 잡게 하여
싸움의 주먹이 되고
싸움의 팔이 되게 하여
대지의 힘찬 목소리가 되게 하였다
그들 만백성들은
이 위대한 혁명가의 가르침으로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맛보지 못한
자유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과 동지를 분간하여
농민의 해방을 위한
전투에 가담할 줄 알았으니

보아 다오 그들은
강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자유를 위해 구걸 따위는 하지 않았다
보아 다오 그들은
부호의 담벼락을 서성거리며

밥을 위해 토지를 위해
 결식 따위는 하지 않았다
 보아 다오 그들은
 판관의 턱을 쳐다보며
 정의를 위해 기도 따위는 드리지 않았다
 보아 다오 그들은
 성단의 탁자에 손을 얹고 선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돈뭉치로 선을 사지도 않았다
 보아 다오 그들은
 이빨 빠진 사자의 입이 되어
 허공에 허공에 허공에
 허황하게 으르렁대지도 않았다
 보아 다오 보아 다오
 이 민중의 지도자는
 이 혁명의 아들들은
 만백성을 위해
 토지와 밥의 정복자로서
 승리를 위해 노래하고 싸웠던 것이다
 대나무로 창을 깎아
 죽창이라 불렀고 무기라 이름했고
 팽이와 죽창과 돌로써 단결하여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악독한 부호의 다리를 꺾어
 밥과 토지와 자유를 쟁취했던 것이다

보아 다오 보아 다오
 새로 태어난 이 민중을
 이 민중의 강인한 투혼을
 굶주림과 추위와
 투쟁 속에서
 더욱 튼튼하게 단련된
 이 용감한 조직을 보아 다오
 고통과 고통과의 결합
 인간의 성체
 죽음으로서만이 끝장이 나는

이 끊임없는 싸움 싸움을 보아 다오
 밥과 토지 자유
 정의의 신성한 깃발을 치켜 들고
 유혈의 전투에 합세했던
 저 동학농민의 햇불을 보아 다오
 압제와 수탈의 가면을 뒤집어쓴

양반과 부호들의 강탈에 항쟁했던
저 동학혁명의 합성을 들어 다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보아 다오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남아
아직도 민중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들의 귀청을 울리고 있는
저 민중의 아픔을 보아 다오
저 혁명가의 외침을 보아 다오
저 동학농민혁명의 합성을 보아 다오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

* 신 순 철

1. 역사적 사실과 역사인식

일반적으로 역사는 '과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든 역사는 현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B. Croce)

모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과거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던 일도 시대가 바뀌면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반대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던 일이 역사책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역사란 과거라고 하는 사건의 무덤 속에서 몇가지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그 바탕에는 자신이 처해있는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이라거나 '사실과 역사가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E. H. Carr)

오늘 우리의 주제인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도 그 명칭이 '동학란'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뀌었던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졌던 사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기로 한다.

2.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성격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객관적인 조건은 조선왕조 지배체제가 지닌 봉건적 모순의 한계상황, 외세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의 확산, 1876년 개항 이래의 상품경제의 발달로 인한 교통 통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고, 주체적 조건으로는 1860년대 이래 전국적인 농민항쟁(민란)으로 나타난 농민의식의 각성과 성장, 동학이라고 하는 농민조직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은 크게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 예비단계

교조신원운동 - 사발통문 봉기계획 - 고부봉기

2단계 : 무장투쟁단계

무장기포 - 백산봉기 - 황토현전투 - 황룡전투 - 전주성 점령 - 전주화약

3단계 : 폐정개혁단계

집강소 설치 - 폐정개혁 단행

4단계 : 반일투쟁단계

삼례재봉기 - 논산집결 - 공주전투 - 논산·태인전투 - 지도부 와해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원광대 사학과 교수

동학농민혁명 과정에 나타난 각종 포고문이나 창의문, 폐정개혁안, 격문 등을 분석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은 다음 3가지로 집약된다.

1) 전국적인 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세력은 농민층이었다. 농민군 조직의 지도부는 동학교단과 일정한 관련이 있고 하급양반과 토반들의 가세가 있었지만 일반농민들이 그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무장투쟁 단계에서부터 충청, 경상도 지방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하여 지방관아를 점령하였고 집강소 개혁과 9월봉기 단계에서는 충청, 경상도 뿐만아니라 경기, 강원, 황해, 평안도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지도부가 몰락한 이듬해까지도 농민전쟁은 지속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한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인도의 세포이 난과 함께 동양의 3대 농민전쟁이었다.

2) 반봉건운동

농민군이 발표한 각종 자료에는 조선의 봉건왕조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목은 없다. <무장포고문>에는 농민군의 적이 국왕이 아니라 권세있는 귀족들이었다. 폐정개혁안은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조항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봉건적인 토지 소유관계로 인한 각종 수탈의 제거와 봉건적인 신분제의 타파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농민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의식은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은 지도부가 지닌 반봉건성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봉건체제를 해체시킨 반봉건운동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최초의 근대개혁인 갑오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3) 반침략운동

척양척왜의 구호에서 보듯 동학농민혁명은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민족 자주운동이며 반식민지화 운동이었다. 갑오개혁의 온건적인 개화파정권이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함으로써 농민군은 청군과 개화정권까지도 적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9월재봉기의 주된 요인은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쿠데타와 일본의 내정간섭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반침략운동이었다.

이러한 반외세의 철저성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나라 안팎으로 동조세력을 얻을 수도 없었고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실패는 청일전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질서의 재편을 불러왔고 외세와 이에 결탁한 조선의 지배세력은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3.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

동학농민혁명의 실패 이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농민군 잔여세력은 의병전쟁과 독립운동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위와 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은 식민지 시대는 물론이고 해방후에까지도 자기 선조의 역사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었다. 100년이 지난 1994년에 와서야 유족회가 결성되고 선조들의 구전자료들을 모아 책으로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다시피는 녹두꽃』, 『전봉준과 그 동지들』 - 역사비평사)

1895년 반일 의병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이되었지만 갑오년에 우리 역사상 최대규모의 반침략운동이었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조차 서훈 대상에서 제외된 채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에도 동학농민혁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원인은 해방후 식민지시대의 민족

적 공과를 청산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의 와중에서 냉전 편승세력이 식민지체제 동조세력과 결탁함으로써 지배권력을 획득하였다. 이들 친미반공주의 정권은 독재화로 지배권력을 유지해왔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있을 때마다 분단체제의 군사적 위기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정권연장을 도모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외세와 그에 결탁한 봉건 지배권력에 대항한 반봉건 반외세의 농민항쟁이었듯이 해방후 민족운동은 외세와 결탁한 독재권력에 대항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 분단체제의 불신과 대결구조를 해소하는 반외세 자주통일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민중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보수지배권력과 민중세력간의 대립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일시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못이겨 보수권력에 의한 요란한 개혁과 혁명을 경험하였지만 이는 당시의 역사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다.

한국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이념을 대외적으로 민족의 진정한 자주독립성의 획득과 대내적으로는 민족구성원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분단체제의 지속은 이 두가지 측면의 발전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이러한 현실에서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동학농민혁명의 반봉건성과 반침략성은 우리시대의 지배권력에 의하여 제약받고 있는 진정한 정치적 자유와 사상과 문화적 는 우리시대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민족자주화의 과제로, 민족통일의 과제로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시대의 시민운동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 실패한 우리 근현대사의 민족적 양심을 바로세우는 일이며 갑오년 선조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들꽃의 향기 따라, 역사의 숨결 따라

■ 동학농민혁명 제1차 기포지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1894년 3월 21일 동학농민군이 {포고문(布告文)}을 발표하고 전면 기포를 단행한 장소이다. 종래에는 오지영의 {동학사}에 근거하여 고부(古阜) 혹은 백산(百山)을 1차 기포 장소로 알았으나 {수록(隨錄)} {석남역사(石南歷史)} 등의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동학농민혁명 1차 기포 장소가 이곳 무장 당산마을로 밝혀졌다. 이 마을은 현재 '구수' 혹은 '구시내' 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같은 이름은 마을 위에 아홉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구암 저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당산마을'로 알려졌던 까닭은 마을 입구에 아름드리 당산나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당산나무는 3년전 도로 확장을 하면서 잘라버렸다고 한다.

최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는 이곳을 동학농민혁명 제1차 기포지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여 문화관광부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사적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해당 기관인 고창군은 제1차 기포지 토지매입과 함께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동학농민혁명 제1차 기포지



■ 전봉준장군 출생지 (生家)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그동안 학계에서는 전봉준 장군 출생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전주출생설, 고부군(현 정읍군) 이평면 조소리 출생설, 정읍군 덕천면 지목리 출생설, 정읍군 산외면 동곡리 출생설, 고창 당촌 출생설(현 고창읍 죽림리 당촌) 등이 제기되었으나 사료 검토와 여러 논의를 통해 현재는 전봉준 장군 고창 당촌 출생설이 공인받고 있다.

오지영은 {동학사}에 전봉준 장군 출생지를 고창현 덕정면 당촌(高敞縣 德井

面 堂村)으로 밝히고 있고, 이곳 당촌에는 전봉준 장군의 어렸을 적의 일화가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또한 종래에는 전봉준 장군이 천안전씨 삼재공파(三宰公派)로 알려졌으나 연구의 진전에 따라 삼재공파가 아니라 고창 당촌에 세를 이루고 기거해 온 백헌공파(柏軒公派)였음이 밝혀지고, 동학농민군의 1차 기포지가 고부가 아닌 무장 당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관련 학계에서는 전봉준 장군 고창 당촌 출생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전봉준장군 생가 터



■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30호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은 1892년 8월 무장 손화중포에서 일어난 석불비결 탈취사건의 대상이 되었던 불상이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1892년 무장 대접주 손화중은 민중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던 *석불비결을 교도들을 동원하여 탈취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손화중포에서 비결을 이용하려 했던 점을 추측해 볼 수는 있으나 동학농민 봉기와 직접적인 관련사실에 대한 표식은 없다. 마애불은 현재 선운사 경내 도솔암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낮은 부도로 된 장대한 크기의 마애상으로서 결가부좌한 자세로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다. 대체로 고려말기의 조각의 수법을 보이고 있어 조선초기의 불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불비결 : 신라시대 금당(金堂)전사가 도솔암 마애불 배꼽에 숨겨 놓았던 것으로서 그 비결이 꺼내지는 날 조선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 자자하였고, 일찍이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이것을 꺼내려다가 벽력이 내려쳐서 도로 넣고 봉해버렸다는 설화에 나타나고 있는 비결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

■ 황토재 기념관·기념탑

사적 제295호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이평면 도계리

계곡을 사이에 두고 두승산과 천태산으로 이어지는 황토재는 해발 35미터의 낮은 구릉지로서 진동 또는 사자봉이라고도 하는데, 1차 봉기 당시 백산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동학농민군이 4월 7일(음)에 전라 감영군과 보부상 부대로 이루어진 농민군 토벌부대를 맞아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이곳 황토재이다.

기념탑 : 황토재 정상에 세워져 있는 기념탑은 관 주도의 '동학혁명기념탑건설추진위원회'에 의해 1963년 10월에 세워졌다. 당시 집권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 세워졌지만 이 탑을 세우기 위해 애쓴 뜻있는 사람들의 공로는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 탑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최초의 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기념관 :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자기 권력의 정통성을 '동학혁명'과 연결시키기 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시도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황토재 일대 유적지를 보존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에 의해 황토재 전적지 일대에 대대적인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때 세워진 것이 황토재 기념관이다. 관 주도하에 졸속으로 조성된 이 기념관은 유물과 전시된 내용들이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시되어 있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유적지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 만석보 유지비(萬石湫 遺址碑)

지방기념물 제33호 -정읍시 이평면 하송

조선후기 수전농법이 보편화되면서 농민들은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물이 흐르는 곳에 물막이 독인 보(湫)를 쌓고 이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갑오년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동진강 상류에 농민들이 쌓은 민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동원하여 그 하류에 새로 보를 쌓고 과중한 수세를 징수하였다. 이에 전봉준 김도삼 정익서 등 고부 군민들은 1893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부관아에 수세감면을 진정하였으나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고부농민들은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의 지휘 아래 관아를 습격하고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농민봉기다. 만석보는 탐관오리 조병갑의 학정의 상징물이다.



▲ 만석보 유지비

■ 말목장터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이곳은 부안 태인 정읍으로 가는 길이 만나는 3거리에 있는 장터로서 1894년 1월 10일 고부농민봉기 때 고부관아로 진출하기 전에 이 일대 농민 1천여명과 합세했던 장소로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직전까지 장두청(고부농민봉기의 지도자들이 머무르며 지휘하던 장소)이 있었던 곳이다. 고부농민봉기 당시 전봉준 장군은 통문을 돌려 1월 9일 저녁 농민들을 이곳에 모이게 했다고 한다. 이곳에 모인 농민들은 대오를 정비하여 이곳에서 3Km 떨어진 만석보로 달려가 보를 허물고 곧바로 고부관아를 기습·점령하였다. 당시 농민군 집결 장소로 전해지는 곳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 전봉준 장군 고택(古宅)·단비(壇碑)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

고택 : 지방기념물 제19호, 사적 제293호로 지정된 전봉준 장군이 살던 옛 집은 갑오년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고부군 궁동면 장내리 조소마을이었다. 이 집은 1894년 고부농민봉기 후 이를 진압하러 내려온 안행사 이용태에 의해 불태워졌으나 후에 다시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봉준 장군은 이곳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와 3월 고창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 1차 기포를 준비했다고 한다.

단비 : 전봉준 장군 고택에서 약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봉준 장군 단비에는 '甲午民主倡義統首天安公塋之壇'이라 새겨져 있다. 단비란 유해가 없는 허묘로, 이 단비의 건립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천안전씨 문중에서 세웠다고 전해진다.



전봉준 장군 고택 ▶

■ 백산봉기 터

지방기념물 제31호, 사적 제409호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이곳은 1894년 3월 25일(음) 수만의 농민군이 집결, 군대로서의 대오를 갖추어 <창의문>을 공포하고 동학농민혁명의 대장정에 오른 역사적인 장소이다. 해발 47미터의 낮은 산이지만 부안 김제 고부 태인 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고부들판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농민군이 집결하기에는 매우 유리한 지점이었다. 이곳에 진을 친 동학농민군은 산중턱의 옛 마한의 토성(土城)에 새로이 돌과 흙으로 성을 쌓고 죽창으로 무장하였으며,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 이름으로 격문(檄文)을 공포하여 8도(八道) 농민들의 봉기와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농민들이 흰옷에 죽창을 들고 모여들어 “앞으면 죽산(竹山)이요 서면 백산(白山)”이라는 말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하여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지도부는 백산으로 모여든 농민들로 이루어진 연합농민군 부대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혁명의 장도에 오른다.

▼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터



■ 원평 구미란 전투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김제시 금산면은 1893년 호남지방 동학지도자들이 원평·금구집회(金溝集會)를 열었던 장소이며, 1894년 11월 25일 전봉준 장군이 지휘하던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맞아 결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1893년 3월 충청도 보은에서 동학지도부에 의해 보은집회(報恩集會)가 열리던 때에 이곳 원평에서도 호남지방 동학지도자들을 중심으로한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를 금구취회(金溝聚會), 호남취당(好男聚黨)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 원평은 1894년 4월 23일 장성 황룡촌 전투(黃龍村 戰鬪)에서 경군을 맞아 대승을 거둔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함락하고자 진군하던 중 4월 26일 원평에 이르러 초토사(招討使)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 위문을 위해 위로금을 가지고 내려오던 선전관(宣傳官) 이주호(李柱鎬)를 체포하여 장성전투에서 체포한 초토사 홍계훈의 종사관(從事官) 이효응(李敎應), 배은환(裊垠煥) 등을 처단하면서 전의를 가다듬었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1894년 11월초 공주 우금재전투에서 패배하여 남하하던 동학농민군은 이곳 원평 구미란에서 11월 25일 뒤쫓아오던 일본군과 관군을 맞아 혈전을 벌이게 된다. 구미란 마을 뒷산에는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동학농민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10여기가 야산에 버려진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한편, 김덕명 대접주의 사적비가 서 있는 학수재 남쪽 언덕에는 당시 전사한 동학농민군을 옮겨 묻었다는 무덤군(群)이 남아 있다.

1999년 현재 원평 구미란 전투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발의로 김제시,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문화관광부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원평 구미란 전투지 ▲▼ 무명농민군 무덤군(群)



동학농민혁명 전개 일지

- 일자는 음력입니다

- 1892.10. 동학교도의 공주신원운동.
- 11. 1. 동학교도의 삼례신원운동.
- 1893. 2. 9. 동학교도의 광화문 복합상소.
- 2.14. 동학교도의 서울 패서사건.
- 3.10. 동학교도의 보은집회.
- 3. 4. 금구원평 집회.
- 4. 2. 보은집회 해산.
- 11.15. 고부군민 조병갑에게 수세감면 요구.
- 11. 30. 조병갑 익산군수로 전임 발령.
- 1994. 1. 9. 조병갑 고부군수로 재부임.
- 1.10. 고부농민봉기 고부관아 점령.
- 1.25. 고부민군 백산으로 이동함.
- 2.15. 조병갑 정죄, 김문현을 감봉, 박원명 고부군수 임명.
- 2.16. 이용태 안핵사로 임명.
- 3. 3. 박원명의 설득과 회유로 고부군민 기본세력 해산.
- 3. 안핵사 이용태 고부민군 강경탄압.
- 3.13. 고부민군 완전 해산, 전봉준 무장 손화중포로 피신.
- 3.20. 동학농민군 무장에서 전면기포.
- 3.23. 고부군 재점령.
- 3.25. 백산에 집결하여 '호남창의대장소' 설치.
-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손화중·김개남 추대.
- 백산창의문과 농민군 4대 행동강령, 군율 등 선포.
- 4. 3. 전라감영군 백산으로 출동.
- 4. 6. 부안과 태인으로 후퇴.
- 4. 7. 황토현에서 감영군 격파. 정읍관아 점령.
- 4. 8. 흥덕, 고창점령.
- 4.12. 농민군 영광 점령.
- 4.15. 경군 원평 진출.
- 4.16. 농민군 함평 점령.
- 4.21. 경군 영광 도착.
- 4.23.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경군 격파.
- 4. 25. 정읍, 태인, 원평진출.

4. 26. 원평에서 선전관 이주호, 군관 이효응, 배은환 등 참수.
4. 27. 전주성 입성.
4. 28. 경군 원산 포진. 동학농민군과 경군 접전.
5. 4.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 아산만 상륙.
5. 6. 일본 군대 인천항 상륙.
5. 7. 전주화약 체결. 전라도 일대 집강소 설치.
6. 21. 일본군 경북궁 침입. 민씨정권 몰락.
6. 25. 친일 개화정권 수립, 군국기무처 설치.
7. 1. 청일전쟁 선전포고.
7. 2. 전봉준 남원 순회. 일본군 경북궁 침입소식 접함.
7. 15. 전봉준, 김개남 남원대회 개최.
8. 17. 청일전쟁에서 일본군 승리. 일본의 조선 내정 적극 간섭.
9. 초 전봉준 원평에서 2차 기포 숙고, 삼례 진출.
9. 12. 삼례에서 2차 기포 결정. 삼례 집결 통문.
9. 25. 경상도 안동에서 농민군 3천명 봉기.
9. 말 최시형 휘하 복점 가담.
10. 6. 황해도 해주에서도 봉기.
10. 16. 남점과 북점 합류. 김개남부대 전주 도착.
10. 21. 목천 세성산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선발대 패퇴.
10. 24-25. 효포, 대교 곱터전투.
11. 9. 우금재 전투. 동학농민군 패배.
11. 25. 원평 구미란 전투. 태인으로 후퇴.
11. 27. 태인 전투. 동학농민군 주력부대 해산.
12. 1. 손화중 부대 해산. 김개남 태인에서 체포.
12. 2. 전봉준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
12. 3. 최경선 체포.
12. 5. 전라도 남해안의 동학농민군 장흥 점령.
12. 7. 전봉준 일본군에 의해 나주목으로 압송.
12. 10. 전라도 남해안의 동학농민군 강진 점령.
12. 11. 고창에서 손화중 체포.
12. 13. 김개남 전주 (장대)에서 효수.
12. 24. 최시형의 복점군 충주에서 해산.
1895. 1. 1. 원평에서 김덕명 체포.
3. 29.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성두환 등 교수형

